목회자 컬럼

문화적 열등감

임영수 목사

고국을 떠나 외국 여행을 해보면 자기 나라에서 느껴보지 못하던 것을 느끼고 볼 수 있게 된다. 그러한 것이 해외 여행에서 배우게 되는 유익성이라 생각된다.

우리나라가 문민정부가 되기 전에는 아직도 우리는 자유민주체제의 나라가 아니라는 데서 오는 열등감이 있었다. 문민정부가 이루어지고 나서 그러한 데서 오는 열등감은 없어졌다. 우리도 당당한 자유민주체제의 나라라는 긍지를 갖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해외에서 느끼는 민족적 열등감이 있다. 그것은 문화적 열등감이다. 그러한 느낌은 특히 선진국에서 더욱 많이 느끼게 된다. 우리가 문화적으로 빈약하다는 것을 깊이 느낀 것은 어느 때보다도 IMF 이후부터이다. 우리는 잠시나마 OECD에 가입한 선진국이란 긍지를 갖고 있었다. 그러한 긍지가 불과 얼마 못가서 무너지게 되고 그것이 허상이었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좌절은 더욱 컸다. 잠시 동안의 선진국 대열에 있을 때 해외 어디로 가나 쉽게 볼 수 있었던 것이 한국 관광객들이었다. 그러나 IMF 이후부터 해외에서 한국 관광객은 거의 볼 수 없을 정도로 줄어들었다.

필자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빨리 경제위기를 벗어나서 관광붐을 일으키자는 것이 아니다. 이 시점에서 생각해볼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하면서 경제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문화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 가지 비유를 든다면 부요하게 사는 두 가정이 있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한 가정은 건전한 가풍, 높은 질서의식, 사회적 책임감, 가족들의 건전한 생활양식, 건전한 지적 기반, 삶을 공존해갈 줄 아는 공동체의식, 문화적 감수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 가정은 그러한 것이 전무한 가운데 경제적인 '부' 만을 갖고 있다. 두 가정 다 사업의 도산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다. 물질 외에 정신적인 것을 더 소중하게 많이 간직하고 있었던 가정의 가족들에게 사업의 도산은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던 가정의 경우 마치 초상집과 같은 분위기가 되었다.

국제화 시대일수록 자기의 것이 분명해야 한다. 돈만 있다고 선진국이 되는 것이 아니다. 민족적 자긍심은 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돈으로 이루어진 허세와 교만은 오래 가지 못한다. 이제 우리는 어디에 가서라도 한국 사람이라는 사실에 부끄러워 하지 않을 수 있는 민족적 긍지의 기반을 세워 나아가야 하겠다. 한국 사람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신실한 민족, 믿을 수 있는 민족, 정직한 민족, 윤리의식이 높은 민족, 뇌물을 싫어하는 민족,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일을 처리할 줄 아는 민족, 협동하며 살아갈 줄 아는 민족, 창의력 있는 민족, 인간의 생명을 귀히 여길 줄 아는 민족, 평화를 위해 일하기를 기뻐하는 민족이라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나라를 이루어가야 하겠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저력이 있다. 그 저력이란 우리 민족의 자질이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고유한 문화적 전통들과 아름다운 자연환경이다. 다른 나라를 다녀보면 별 것 아닌 것을 가지고도 가꾸고 보존해서 부를 창출해내는 것을 볼 수 있다. 자연환경이 우리나라만한 나라가 많지 않다. 지금은 오염이 되어서 그렇지 물을 자연의 물 그대로 마실 수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다. 우리나라만큼 자질이 좋은 민족도 드문 것이다.

문제는 우리의 형성 과정이 잘못되어 있다. 이 왜곡된 것들을 바로 잡아가야 한다. 그래야만 희망이 있다. 한 번 우리 모두 가슴에 손을 얹고 깊이 생각해보자. 우리가 본래부터 뇌물을 좋아하는 민족으로 지어졌는가, 우리가 본래부터 서로 분열하는 민족으로 태어났는가, 우리나라 국토가 본래부터 이렇게 황폐한 땅이었는가, 우리는 진정 열등한 민족인가, 여기에 대한 대답은 '아니다' 이다.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 있는 미래의 우리나라는 심판이 아니고 희망과 평강 가운데 있다. 우리 모두 그 미래를 향해서 새 삶을 이루어가야 하겠다.

함즐함울

즐거워 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 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롬 12:15)

제14호 (격월간)
발행일 1998년 9월
발행처 주님의교회 출판부

주님의교회

(135-010)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25-6
강남 YMCA 1층
T. 511-1497~8 F. 511-1496
인터넷 ID : http://www. Lord - church. or. kr

CONTENTS

1
문화적 열등감 / 임영수 목사
2~3
특집 / 여름수련회
4
주님의 교회를 떠나며 / 박미화 집사
5
먼지보다 더 작은 우리들 / 왕승근 집사
6
소년부의 아름다운 전도 / 조은삼 집사
의학상식 / 김유호 집사
7
교회소식
교우동정
법률상식 / 김완중 집사
새 책 안내
8
시 / 이드보라 선교사
만화 / 나승훈(소년부)
제헌국회 기도문

특집 / 여름수련회

'98 교구 수련회에 다녀와서

선경희 집사(5구역)

'98 교구 수련회에 우리 내외와 동생 내외가 함께 참가신청서를 내면서부터 설렘이 있었다. 각기 일터가 다르기에 우리 넷이서 똑같은 시간을 맞추기에 매우 힘들었던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니기에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네 사람에게 똑같이 허락하실까, 라는 생각때문이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선 우리에게 그 시간을 허락하신 것이다. 감시와 기쁨 속에서 이틀동안 조장 교육을 받고 드디어 8월 3일에 횡성 수련원에 도착하였다.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한 사람 곁에 있으면 풍성한 은혜를 받게 된다"는 말을 기억하며 8조 조원들을 만났다. 고통스러운 현실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믿음이 확실한 집사님들의 간증과 기도의 제목들을 들으며 얼마나 은혜스러웠는지 모른다. 지면을 통해 그 집사님들에게 감사드린다.

여는 예배시간이었다. 《거룩한 곳에 서라》는 말씀을 듣고 기도하던 중 감기어진 내 눈앞에 확실하게 보이는 것이 있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얀 블라우스였다. 옷걸이에 걸린 채 내 눈앞까지 곱게도 내려와 있었다. 하나님께서 내게 입혀주시길 원하시는 새 옷이었다. 옛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으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인 듯했다. 그간 삶의 외적 조건만 가꾸느라고 의미없이 분주했다. 그러나 이젠 그 반대편에 있는 새로운 삶을 요구하시는 것이었다. 나의 영혼은 생명수로 어느 정도 채워졌는가? 진리의 도구된 삶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꼬리에 꼬리를 문 질문이 내 자신에게 던져졌다. 임영수 목사님의 특강시간에 자기부인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말씀으로 응답을 받았다. 그러나 아직도 그 질문은 계속되고 있다. 아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새롭게 형성되어 가는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끝도 없이 던져질 질문이 될 것 같다.

결단예배시간, 김화수 목사님께서 증거하시는 구원자 하나님, 확실한 천국은 회개와 영혼을 치유하는 뜨거운 눈물의 홍수에 빠뜨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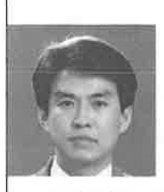
많은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내겐 분명하게 보이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하나님께선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를 영원하신 생명으로 지켜주시고 세워주심을 확신한다. 모래 한 알갱이 정도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간의 인식 수준으로 하나님의 온혜를 다 표현할 수 없으며, 신앙은 3차원의 시간이 아니라는 전도사님 말씀으로 앞으로 더욱 가까이 만나야 할 위대하신 하나님을 그려보았다. 사랑하는 남편도 예쁜 믿음의 싹을 틔웠고 수련회 기간중 귀한 만남의 교제를 통하여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배우는 은혜를 받았단다. 금번 수련회는 우리 가족의 영혼을 더욱 새롭게 가꾸시기 위한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이셨던 것이다. 성경 공부 Ⅰ, Ⅱ, Ⅲ에 준비된 말씀도 그간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다. 완벽하게 하나님 안에서 보호받고 있음을 깨닫는 수련회였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일이라면 두려워하지 않으련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순종하는 삶의 그 끝은 기필코 Happy Ending임을 믿기에…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린다. 항상 기뻐 기도하련다. 애써 주신 교역자님들, 봉사자님들께 감사드린다.

불꽃처럼 타오르는 공동체 훈련

강정녀 집사(41구역)

98년 수련회는 빗속에서 시작되었다. 유난히 많은 비가 내렸던 수련회.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어찌 이런 일이 있었을까? 잘 짜여진 일정표대로 시간에 맞추어 비가 내려주었기 때문이다. IMF 탓인지 많지 않은 성도님들이 참여한 수련회는 여는 예배로부터 시작되었다. 수련회를 통해 새로운 만남이 시작되었으며 조원들간의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져 갔다. 영외 양식 또한 좋았다. 갈급한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가면서 우리 자신들의 삶을 점검할 수 있었으며 '새 일을 행하리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3회에 걸쳐 이사야 43장을 깊이 묵상하며 말씀을 통하여 많은 은혜를 체험케 해주셨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했던 일들을 서로 나누면서 은혜 가운데 성경공부를 마쳤으며 조원들 서로의 기도제목으로 합심기도를 하면서 중보기도를 약속했다. 임영수 목사님의 말씀은 우리들이 쉽게 지나쳐 버리기 쉬운 부분들까지도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신 유익한 시간이었다. 또한 그뿐인가? 공동체시간은 우리 모두를 동심의 세계로 이끌기에 충분했다. 젊은 성도님들보다 더욱 더 열심히 참여하셔서 노익장(?)을 과시하셨던 장로님, 권사님들과의 아름다운 공동체 훈련이었다. 우리를 기다리게 했던 '별이 빛나는 밤'은 별이 없는 밤으로 시작되었다. 뜨거운 열기 속에서 진행되어서인지 내리던 빗줄기도 멈췄다. 장작불을 피워놓고 폭죽을 터트리면서 아름다운 밤은 깊어만 갔다. 은쟁반에 옥구슬 굴러가는 목소리의 손집사님과 호흡을 잘 맞추어 주셔서 익살스럽기까지 한 안사무엘 목사님. 아름다운 연주를 해주신 김효숙 목사님. 분위기는 힘차게 타오르는 불꽃처럼 우리 모두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다.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엄마가 아들에게 등등…. 아름다운 사랑의 편지는 별 없는 밤을 밝게 해주었다.

마지막 하이라이트 성경퀴즈대회가 시작될 즈음 각 조는 마치 작전을 세우며 전쟁터에 나가는 군대 같아 보였다. 한 치의 양보없이 성경퀴즈는 진행되었다. 순간 회개를 하며 평소 바쁘다는 핑계를 대면서 말씀읽기를 게을리 했던 나 자신을 탓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순간 다른 조원들은 말씀 속에 숨겨진 귀한 보화를 열심히 캐내곤 했다. 우리 조의 결과는 생각했던 것보다는 좋은 끝맺음을 하였다. 이번 수련회를 준비하신 교역자님들의 아름다운 연합이 단연 돋보였다. 이 아름다운 모습 또한 우리 성도들에게 몸소 행함으로 보여주셨다. 2박3일의 수련회 동안 식사준비로 수고하신 봉사자님들의 수고 또한 감사드린다. 웬만한 호텔 뷔페를 능가한 만찬이었다. 그 덕분에 영의 부유함은 물론이었고 육의 부유함 또한 우리 모두를 넉넉하게 만들어 주셨다. 잊지 못할 빗속의 횡성수련회였다. 바람이 있다면 내년 수련회에는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속에서 아름다운 공동체 훈련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횡성 어둔리 수련원에서

엄일용 집사
(횡성수련원 총무)

위인들에게는 훈장이 수여되며, 영웅들에게는 찬가가 바쳐진다. 성취하는 사람, 매력있는 사람은 언제나 인정을 받고 보상을 받는다. 그러나 남의 눈에 띄는 한 사람 주위에는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보상받는 것도 없이 사랑하며 섬기는 성도들이 수없이 많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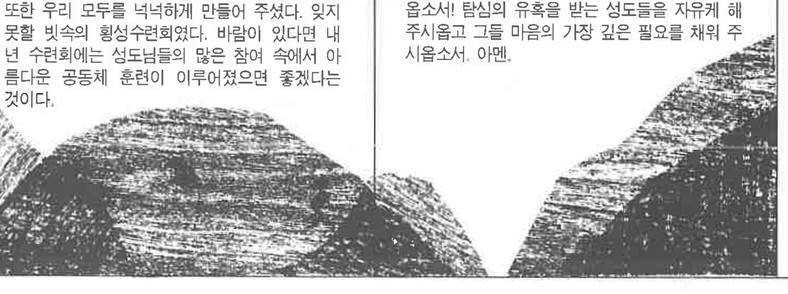
우리는 '나'라는 요인을 적절히 다루지 못할 때 타락에 빠진다. 그것은 쓴 뿌리가 돋아나는 씨앗이며 그것의 종국은 사망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일부 기독교 기관들 내부에, 그리고 많은 그럴 듯한 간증들 속에 바로 '나'를 구하는 암세포가 도사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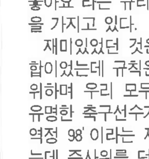
베드로가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좇았사오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마 19:17)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은 대답하셨다. "그래 베드로야 너는 뭔가를 얻게 될 것이다. 단 하나의 희생의 발자국도 그냥 잊혀지는 것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회계장부 기록법은 세상의 것과는 다르다. 즉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많은 사람이 먼저 된다. 인간들이 경멸하는 것을 종종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시고 상을 주시다. "오, 베드로야! 하늘의 눈으로 삶을 보는 시각이 너에게 얼마나 필요한 지!"

우리에게도 똑같은 시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뭔가를 얻는 것이 나쁘지는 않다. 그러나 보상을 탐하는 것, 그 탐심으로 인하여 타락하는 것, 그리고 인정을 받지 못할 때 악한 마음을 품는 것, 이런 것은 분명 죄이다. 우리의 삶과 섬김엔 단 하나의 눈만이 필요하다.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한다는 눈이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보상을 받거든 감사드리고, 보상을 못받거든 정확한 장부를 갖고 계시는 그 분께 맡겨라. 하나님은 우리의 '골짜기의 경험들'을 통하여 우리의 숨은 동기들을 살펴주실 것이다. 그럴 때 우리는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 자체만으로 만족하게 될 것이다. 그때 우리는 그 분의 무익한 종들 가운데 하나가 된다는 섬김의 '순수한 특권'을 누리게 된다.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볼 때 우리는 소박하게 사셨던 주님과 우리가 참 거리가 먼 것 같이 느낀다. 베드로의 질문을 던지고 싶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도 많이 있을 것이다. 이 어둔리 골짜기에 오셔서 보이지 않게 수고하시고 박수도 받지 못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

오, 아버지! 제 삶 속에 아직도 십자가에 못박히지 않은 채 남아있는 '나'를 받아주옵소서. 제 눈이 늘 한 곳만 보게 하옵소서. 제가 주님의 영원한 목표만을 위해 진실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탐심의 유혹을 받는 성도들을 자유케 해 주시옵고 그들 마음의 가장 깊은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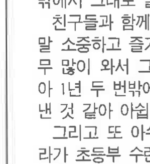
끝날까지 함께 하신 주님

남문근(초등부)

이번 수련회는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생활하며 많은 것을 배웠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끝날까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니 세상의 끝날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졌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를 준비하며 내게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다짐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부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요즘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라는 큐티 책으로 아침마다 경건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

재미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땀'이라는 축구시합이었는데 규칙은 월드컵 규칙이었지만, 건강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열심히 뛰었다. 당장이라도 유명한 축구선수가 된 기분이었다. 그리고 '천로역정 98'이라는 제목으로 불루마블 게임이 있었는데 주사위를 던져서 조원들과 함께 다니는 게임이었다. 그 게임에서 조원들과 협력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다. 우리 조는 열심히 했지만 아쉽게도 꼴찌에서 두번째로 들어왔다. 기억에 남는 것은 캠프파이어가 있다. 장기자랑에서 1등한 아이들이 비가 오는데도 자기의 자랑을 다시 한 번 보여 주었고 폭죽도 몇 개나 터트렸다. 참으로 즐거운 시간이었다. 여러 프로그램으로 즐거웠던 2박3일이 아쉽게도 금방 지나가버렸다.

그런데 동네분들이 아이들이 돌아다니는 것을 싫어한다고 '담력훈련과 야외프로그램'이 별로 없었다는 것이 아쉬었다. 조금 불편했던 점은 방이 좁아서 아이들이 지나갈 때 마구 밟아서 편안하게 잘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화장실이 밖에 있어서 화장실에 가면 달콤한 잠이 깨어 불편하였다. 그렇지만 이 좋은 자리를 주신 하나님, 우리가 잘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전도사님, 부장님과 모든 선생님께 감사를 드린다. 2박 3일동안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신 권사님들에게 감사드린다. 그리고 함께 자고 함께 생활하면서 서로 양보하고 사랑한 친구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다음 수련회를 생각하니 벌써부터 기대가 된다.



수련회에 다녀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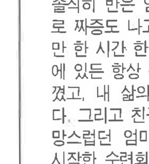
이혜수(초등부)

이번 수련회는 다른 수련회보다도 좀 특이한 것 같았다. 비가 많이 왔기 때문이다. 다른 때 같았으면 안에서 프로그램을 했을텐데 이번에는 밖에서 그대로 밀고 나간 것이다.

친구들과 함께 뛰어놀고, 목욕도 같이 하고, 정말 소중하고 즐거운 시간이었다. 하지만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그런 지 빈둥빈둥 노는 시간이 많아 1년 두 번밖에 없는 소중한 수련회를 그냥 보낸 것 같아 아쉽기도 하다.

그리고 또 아쉬운 것은 내년이면 소년부로 올라가 초등부 수련회를 갈 수 없다는 것이다.

이제 몇 달만 있으면 소년부로 올라갈텐데…. 하지만 초등부 수련회를 마쳐며 다음에도 항상 초등부를 위해 기도할 것을 약속한다.



새 사람을 입으라

양유진(중등부)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엡 4: 23 ~ 24)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난 2박 3일 동안 중등부 수련회가 있었다. 비록 덥고 힘이 들 때도 있었지만 많은 것을 배우고 또 정말 재미난 시간을 보냈다.

첫날 횡성수련원에 갔을 때에는 벌레도 많고 솔직히 반은 엄마의 강요에 의해 온 수련회이므로 짜증도 나고 엄마가 원망스럽기도 했다. 하지만 한 시간 한 시간 지내다 보니 내가 언제 어디에 있든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음을 조금이나마 느꼈고,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았다. 그리고 친구들과 친해지고 보니 재미있고 원망스럽던 엄마가 고마워졌다. 가자마자 예배로 시작한 수련회는 예배로 끝을 맺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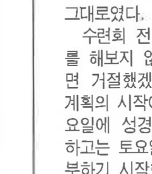
첫날은 수련회에서 함께 지낼 조를 추첨해서 서로에 대해 알고 또 협동해서 조별로 장기자랑을 준비해 조별발표회도 가졌다. 처음에는 서먹서먹해서 말도 잘하지 않던 조원들이 이 시간을 통해 곧 친해질 수 있었다. 깜깜한 밤이 되자 목요미스테리라는 프로그램을 했는데 어둡고 침침한 곳을 7, 8명의 조원들이 몇 개의 랜턴에 의지해 찾아가서 주어진 과제를 푸는 일이다. 프로그램 계획표에서 보았을 때 그냥 귀신놀이로만 생각했는데, 전도사님께서 귀신놀이가 아닌 서로의 협동심과 담력을 키우는 시간이라고 열심히 설명하셨다. 여러가지 주의사항도 많고 길이 잘 보이지 않아서 조금 무섭긴 했지만 재미있었다.

둘째 날에는 찬양의 시간이 있어서 재미있는 율동도 배우고 찬양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다. 전에는 노래 못 부르는 것을 핑계로 찬양시간이 되면 박수만 치면서 시간을 보내곤 했는데,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주님께 가까워지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노래로만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고 나니 그 동안의 내 생각이 창피했다. 그리고 앞으로는 찬양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겠다고 생각했다.

저녁에는 캠프파이어와 토크쇼, 장기자랑을 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캠프파이어를 할 때 전도사님께서 옆으로 돌아가면서 20명 이상의 사람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안아 주기도 하라셨는데 조금 쑥스러워서 멀뚱멀뚱 서 있었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오셔서 안아 주시기도 하고 기도도 해주시니 기분은 좋았다. 다음에 이런 기회가 또 온다면 그때는 받기만 하지 말고 남에게도 베풀어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이날 밤은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과 이야기하고 놀다가 밤을 꼬박 새웠다. 공부할 때는 시간이 잘 가지도 않던 밤이 놀면서 보내니 시간이 정말 금세 지나갔다.

마지막 날은 자연과 함께 하는 시간이 많았는데 무엇보다 물놀이하는 시간이 가장 신나고 재미있었다.

정말 맑고 깨끗해 밤에 별도 무지 많이 보이는 횡성에서의 중등부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잘 지켜나가야겠다고 생각했고, 아직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말의 뜻을 다 알지는 못했어도 내가 주님과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어 준 모든 사람이 너무 고마웠다. 정말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시간이 되었다.



청년2부 수련회를 다녀와서

지형민(청년2부)

모든 것을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수관하셨다.

수련회 이전의 나의 삶은 곤고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힘든 공부에 지쳐가고 있었다. 그러나 내 삶을 주님께 맡기려 하지 않고 내 주관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세상이 가르쳐 주는 삶을 살고자 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런 삶이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삶임을 잘 알고 있었고 변화되길 원했다. 그러나 삶의 모습은 항상 그대로였다.

수련회 전 주일 목사님께서는 성경공부 리더를 해보지 않겠느냐고 권유하셨다. 평소 같았으면 거절했겠지만 이번에는 주님께서 준비하신 계획의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수련회 전 토요일에 성경공부예습을 목사님과 함께 하기로 하고는 토요일 새벽에야 일어나 교재를 펴고 공부하기 시작했다. 그때 어머니께서 미리 준비하지 않음을 보시고 꾸짖으셨다. 나는 내 삶의 심각한 문제를 느꼈다. 그래서 나부터 고쳐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드렸다. 그리고 '성령충만'에 대해 공부하면서 성령님에 대해 하나씩 알아갔다. 그리고 배운 대로 구했다. 죄를 자백하고 주님께서 구하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성령충만을 구했다. 그리고 그 사실을 확신했다.

수련회 가서 막상 성경공부를 시작하면서 걱정이 앞섰다. 모두들 성령충만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다. 부족한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그러나 주께 모든 것을 맡겼다. 말씀을 서로 나누는 가운데 우리들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왜 오셨는지, 그리고 성령충만 받아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 나누었다. 또 성령의 열매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결국은 성령의 열매맺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또 요한1서 5:14~15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간구하면 성령은 우리를 충만케 하실 것이라는 것도 발견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성령충만케 해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드렸다. 그리고나서 성령충만 받은 사실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공부했다. 마지막으로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말씀을 상고하고 아버지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성령을 헛되이 소진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성령충만한 상태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모든 공부를 마치고 소감을 나누는 자리에서 모두들 성령충만의 사실을 믿고 감사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나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심을 확신할 수 있었다. 처음부터 날 붙들어주시고 수련회를 통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다. 날 변화시키고 우리 모두를 구속하신 것이다. 오직 주님만이 계획하시고 실행하실 수 있는 멋진 사건이었다.

이제 개강을 하고 다시 공부를 시작한다. 삶의 순간마다 중요한 선택도 많이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다르리라. 나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고자 한다. 부족하고 모난 나를 주님께서 치유해주시고 고쳐주실 것임을 확신한다. 말씀의 굳건한 뿌리 위에 서고자 한다. 주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려 하시는 모든 일이 이제부터 하나씩 이뤄지리라 믿는다.

기고문

주님의교회를 떠나며

박미화 집사

3년 전 우리 가족은 약 7년간의 해외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다. 남편의 해외지사 발령으로 우리 가족이 처음 홍콩에서 살게 되었을 때, 우리는 30대 초반이었다. 떠나기 전 우리 부부는 집사 직분을 받았지만, 솔직히 성경 한두 구절도 깊이 있게 알지 못했다. 남편은 모태 신앙자였고, 성당을 다니던 나는 남편을 따라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우리 부부는 결혼 후 거의 습관적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고, 때에 따라 헌금도 나름대로 성실히 한 편이었다.

1년 반 후 우리 가족은 다시 상해로 남편이 지사장 발령을 받아 떠나게 되었다. 국교가 수립되기 전이니까 한국 사람, 한국 교회가 없는 곳이었고, 우리 가족의 신앙 생활은 중지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우리 집에서 떠나기 전에 마지막 예배를 보는데, 우리 가족은 하나님께서 상해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목사님이 말씀하셨다. 그후 상해에서 신기하게도 여기저기서 오시는 목사님들, 선교사님들과 우연히도 거의 빠짐없이 연락이 되었고, 어느덧 우리 집이 모임의 장소, 예배드리는 장소가 되었으며, 우리는 집과 음식을 제공할 수 있었다. 그러면서 나의 믿음도 점점 뿌리내리기 시작했고,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닌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 작은 힘이었지만 **우리 집에서 여럿이 모아 왔던 헌금이 상해한인교회가 세워졌을 때 적지 않은 역할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런 생활 중에도 늘 마음 한구석이 채워지질 않았다. 우리 부부가 함께 눈높이를 맞추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3년 전 우리 가족은 서울로 오게 되었고, 마침 고교 동창인 친한 친구(김경미 집사)가 주님의교회를 얘기해 주었다. 우리 부부는 함께 주일날 예배에 참석했다. 아무도 특별한 모습으로 반기는 것 같지는 않았지만, 명료한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 조용하고 진지해 보이는 성도들의 얼굴들, 예배당이 없는 교회, 주보에 헌금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 교회, 장로님들만이 대표기도를 하지 않는 교회 등… 우리 부부가 여태껏 다녀 본 그 어떤 교회에서도 볼 수 없었던 교회였다.

나보다 남편이 더 좋은 반응을 보였고, 남편 스스로 친구들에게 주님의교회를 선전하기 시작했으며, 드디어 구역 예배를 부부가 함께 할 수 있었다. 처음으로 남에게 보이기 위한 헌금이 아닌,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헌금을 하기 시작했다. 또한 진심으로 신앙생활을 묵묵히 해 나가는 주님의교회에서만 볼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여기 저기에서 볼 수 있었다. 더욱이 3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도 장로님들의 이름이나 얼굴들을 다 알 수 없으며, 묵묵히 맡은 일을 뒤에서 말없이 해나가시는 교역자들을 이제야 알게 된 것은 전에 다니던 다른 교회에서는 없는 일이었다.

오랜 계획하심에 따라 주님께서는 묵묵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의 무리를 우리 가족은 만나게 되었다. 우리 부부는 금요일 저녁 함께 성경공부를 하게 되었으며, 구역 식구들과 교제를 갖는 시간을 남편도 좋아할 수 있게 되었다. 교회 주방에서 설겆이를 가족이 함께 할 수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헌금도, 구제도, 봉사도 은밀한 곳에서 하시며,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도록 훈련 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

이제 우리 가족은 또 북경으로 떠난다. 누군가 얘기해 주지 않더라도 우리 가족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 가족은 그 어떤 곳에 가더라도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욱 절실해지는 믿음 생활을 해나가게 될 것이다. 또 우리 부부는 늘 눈높이를 맞추어 나가는 믿음 생활을 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주님의교회에서 배운 대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며,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 생활을 해나갈 수 있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 가족을 위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분의 뜻을 펴나가시리라는 것을 굳게 믿는다.** 주님의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 나가길 진심으로 기도드린다. 우리 가족을 위해 늘 기도해 주시던 구역장님과 구역 식구들께 감사드린다. 아름다운 만남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린다.

98. 7. 5 (4구역) 박 미 화

기고문

먼지보다 더 작은 우리들

왕승근 집사

1992년 3월 새신자반에서 목사님께서 창세기 1장 1절(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에 관하여 말씀을 해 주셨다. 하늘과 땅이 얼마나 크고 광활한지를 강조하시며 위대하신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 설명해 주셨다. 막연하게나마 수긍을 하긴 했지만 그저 아!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구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이 광활한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하는 정도였다. 솔직히 말해 나의 마음 한구석에는 명쾌히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있었다.

나는 취미라고는 유독 낚시밖에 없어서 27년 동안 낚시를 하여 왔다. 7년 전에 교회에 등록을 하고 나서는 주말 낚시는 포기를 하였지만, 배운 것은 이것뿐이라서 지금도 주중에 틈을 내어 낚시터를 찾곤 한다.

낚시하는 사람을 부를 때 보통 낚시꾼이라고 하는데, 이 낚시꾼이라 불리는 사람은 초보자를 의미한다. 물고기의 크기나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다. 두번째로 조사(釣士)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낚시대를 3대 이상 쓰지 않으며 20cm 이하의 물고기는 방류하는 사람을 말한다. 세번째로 조선(釣仙)인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껏 낚시를 하면서 한 사람도 보지 못했다. 한마디로 옛날의 강태공 처럼 단 한 대의 낚시에 낚시바늘에 있어야 할 미늘이 없는 민 바늘로 세월을 낚는 사람을 뜻한다.

낚시의 조사(釣士)라고 자부하는 나는 어느 날 낚시터를 찾았다. 나는 주로 호수에서 고무 보트를 타고서 낚시를 한다. 수정같이 맑디맑은 호수 위에 하나의 점이 되어 밤을 맞으면 사방은 칠흑같이 온통 먹물을 뿌려 놓은 것 같다. 거울같이 잔잔한 수면 가운데 두 대의 낚시대에 매달린 두 개의 발광체가 반짝인다. 어신이 와도 좋고 어신이 없어도 마냥 좋기만 하다.

지난날 동안 자신이 살아온 일, 누구와 다투었던 일, 어버이로서 가정에서 아내와 자녀들과의 문제점 등등…. 그렇다면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떠한 점을 어떻게 고칠까… 온갖 생각을 하다가 문득 하늘을 보았다. 깜깜한 하늘에는 진주를 뿌려 놓은 듯 셀 수 없는 많은 별들이 우주 공간에 뿌려져 있었다. 아! 목사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관하여 말씀하시던 이 우주는 정말 넓구나,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나는 감탄을 연발하였다. 새신자반에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 품고 있던 질문들, 즉 하나님과 나의 정체성에 대한 의문들이 속시원히 풀리지 않은 채 7년이란 세월이 흘렀던 것이었다.

그런데 정말 위대하시고 응답해주시는 하나님께서는 나의 의문에 정확히 응답을 해주셨다. 며칠 후 아침에 신문을 보다가 전율을 느낄 정도로 깜짝 놀랐다. 우주에 있는 행성에 대하여 찍은 두 장의 컬러 사진이었다. 첫째 사진에는 해와 같이 빛을 발하는 행성이 세 개 있었다. 그 옆 사진에는 한 개의 행성은 사라지고 두 개의 행성만 있었다. 없어진 행성이 대폭발을 일으켜 분해되었다는 것이다. 분해될 때 위력은 지구상의 핵무기 모두가 폭발하는 힘의 약 일만 배의 위력이라고 한다. 그런데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온전한 까닭은 워낙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 위력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내가 놀란 것은 그 다음 구절이었다. 즉 그 행성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냐면 지구에서 자그마치 150억 광년의 거리에 있는 행성이라는 것이다. 1광년이란 1초에 30만Km의 속도를 가진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다. 알 수 없는 까마득히 먼 옛날에 그 행성이 폭발할 때의 강렬한 광선이 150억 광년을 달려와서 근래에 인간의 눈에 포착이 되었다는 것이다.

나는 감탄 또 감탄할 수밖에 없었다. 인간이 동원할 수 있는 수식어와 낱말들을 다 동원하여도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절로 고개가 숙여질 수밖에 없었다! 동시에 7년 동안 속시원히 풀리지 않았던 창세기 1장 1절의 숙제가 풀리는 순간이었다. **또한 나라는 존재의 정체성에 대한 의문도 함께 풀리는 것 같았다.**

그 엄청난 우주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먼지보다 작은 나를 이 세상에서 살아오게 하셨구나. 정말 형편없이 작디작은 내가 앞으로 살아갈 날이 얼마인데… 정말이지 시간이 없는 것 같다. 이 지구상의 모든 것을 사랑하려면 남은 시간이 너무도 짧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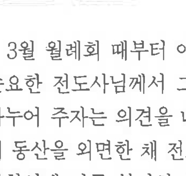
하나님 아버지! 저와 같은 사람에게도 이렇게 명쾌한 해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퇴임하신 이 목사님에게도 감사를 드린다. 이 목사님께서 가시는 길에 항상 하나님의 가호가 함께 하시길 기도 드린다.

함께 즐거워 하고 함께 울라 에서는 원고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향해 다 함께 웃고,
힘든 일도 다 함께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원고를 기다립니다.

간증



소년부의 아름다운 전도

조은삼 집사

3월 월례회 때부터 야외 예배에 대한 안건이 논의되었다. 손요한 전도사님께서 그곳에 가서 아이들이 만든 전도지를 나누어 주자는 의견을 내 놓았을 때, 과연 우리 아이들이 놀이 동산을 외면한 채 전도지를 나누어 줄 수 있을지, 한창 행락철인데 너무 복잡하지는 않을지, 차량은 무엇을 이용하여 가야할지, 정신여고에서 아이들 집까지는 어떻게 갈지에 대해 우려들이 높았다. 일단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4월 셋째주부터 전도지 샘플을 양윤정 선생님이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제시하였다. 그 다음 주부터 하나씩 하나씩 아이들의 기발한 아이디어와 예쁜 마음들이 형형색색의 전도지로 나타나 차곡차곡 쌓였다.

드디어 5월24일. 한 주일 전부터 일기예보에 귀를 기울이던 선생님들, 3개 방송사에서 비를 예보했기 때문에 전날 저녁까지 일기예보 안내와 씨름한 선생님들. 그러나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으로 예비하셨다. 너무 덥지않은 알맞은 날씨, 감사합니다.

담임 선생님들과 전철을 타고 이동하였다. 아이들의 배낭은 소풍 때와 같이 도시락과 간식들로 가득 찼고, 코에는 엄청난 바람이 들어 있었다. 아이들은 동생 세 명까지 합하여 60명, 선생님은 22명이었다. 넉넉히 싸 주신 김밥으로 사랑의 떡을 떼었다.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인 전도지를 나누어 주는 시간이 되었다. 두 명씩 짝을 지어 파송하면서 그 입에 말을 넣어 주었다. "주님의교회 ○○○입니다. 저희들이 만든 것인데 읽어 보시고 가까운 교회에 나가십시오." 아이들이 담대하도록 기도하면서 선생님들은 가까이서 지켜 보았다. 부끄러워서 전도지를 내밀지 못하던 아이가 계속 쭈뼛거리자 권옥령 선생님이 용기를 북돋았다.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왔으니까 만날 만한 사람을 예비해 놓으셨어." 드디어 한 장을 수줍게 내민 윤제는 또 한 장을 내밀었고, 아이들은 잠시 후 상기된 채 "여덟 장을 주었어요." "열 두 장을 주었어요." 보고한다. 받은 사람의 연령층, 성별 그리고 반응 등을 신이 나서 떠드는 아이들을 보면서 꼭 안아주고 싶었다. 감격으로 가슴이 메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들을 해낸 아이들의 얼굴들이 이 순간도 떠오르면서 자랑스럽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한 주님의교회 소년부의 쾌거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협조해 주신 부모님들 감사합니다.

절대로 지나칠 수 없는 놀이동산에서 아이들은 지칠 줄 몰랐다. 아이들보다 더 열심히 놀이기구를 타는 양윤정 선생님, 공중 회전그네에서 거의 기도하는 자세로 끝까지 참아내신 이희순 선생님, 전날까지 아파서 교회에 나올 수 있을지 미지수였지만 담임이라는 책임 때문에 얼굴이 허연 채 끝까지 따라 다녔던 최영미 선생님, 반 아이들과 꼭 닮아 있는 류상규 선생님, 채미애 선생님, 분요한 아이들의 뒤를 따라 열심히 뛰어다닌 노봉옥 선생님, 우상연 선생님, 끝까지 뒤를 보아주신 우리 부장 선생님, 이름을 열거하지 않았지만 물심양면으로 노력한 모든 선생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의학상식

증상으로 알아보는 심장질환(3)

김유호 집사(심장전문의)

흥분하거나 운동 후에 가슴이 빨리 뛰는 것은 정상적인 신체반응이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비정상적으로 너무 빠르거나 아주 느린 경우 또는 맥박이 불규칙한 경우를 총칭하여 부정맥이라고 한다. 부정맥은 여러가지 증상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일부에서는 급사의 직접적 원인이 되므로 아주 위험한 질환이다.

정상인의 맥박수는 안정시에 50회에서 80회 내외이고 운동시 최고 180여회까지 증가한다. 그러나 안정시에 맥박수가 100회를 넘거나 활동시에도 50회 미만인 경우, 그리고 맥박이 아주 불규칙하게 뛰는 것은 모두 부정맥에 해당한다. 이중에서 맥박이 비정상적으로 아주 빠른 경우를 빈맥이라고 하는데, 흔한 증상은 '가슴이 갑자기 뛰기 시작하면서 불안해지고 어지러울 때도 있다' '운동하다가 갑자기 어지러워진다' 등으로, 빈맥이 시작되면서 갑자기 의식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다. 비정상적으로 아주 느린 경우는 서맥이라고 하는데, 대개 '갑자기 어지러웠다가 안정하면 가라앉는다' '항상 숨이 차고 힘이 빠진다' '깜빡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났다' 등의 증상을 호소하는데 맥박수가 분당 40회 이하로 떨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빈맥 및 서맥으로 인한 증상이 의심되는 경우는 정확한 진단을 위해 일반심전도 및 증상이 있을 때 기록하는 특수한 심전도검사 등이 필요하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부정맥과 연관되어 호소하는 증상은 대개 '맥이 가끔 빠진다' '심장이 가끔 잘 안 뛰는 것 같다' '가슴이 갑자기 울렁하거나 뻐근해진다' '가슴이 아프면서 숨이 짧아지고 머리가 빈 것 같다' 등이다. 이 경우는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다가 가끔 반 박자 먼저 뛰어서 심장에서 나오는 혈액의 양이 순간적으로 작아지고 폐에 정체되는 혈액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생기는 증상으로 심장의 기외수축이라고 부른다. 이것은 위험하지 않으며 급사와는 무관한 부정맥으로 많은 경우 치료를 안해도 좋아지나 이들 증상에 민감한 사람들은 약물치료를 받기도 한다.

교우동정

▶ 소천
- 조동인 협동장로(배홍자 집사 부군/41구역)
- 이승애 권사(정상군 집사 부인/36구역)
- 김석순 성도(김은정 권사 부친/40구역)
- 한창남 성도(한형석 집사 부친/58구역)
- 손영국 성도(한영숙 집사 부군/71구역)

▶ 이사
- 최상인 · 김원미 집사
  도곡동 우성캐릭터 199 A 1-1205 (576-6439)
- 김춘선 집사 / 강남구 포이동 167-4 영창B/D 501호 (529-7903)
- 송호상 · 정성란 집사 / 강남구 역삼동 721-31(3452-6696)
- 최창섭 · 강은애 집사 / 강남구 역삼1동 697-22(501-4390)

▶ 입대
- 한규진(한윤경 장로 3남) 8/24
- 정태원(박영남 집사 장남) 8/24

▶ 취임
- 김유성 집사(26구역) 서울대 법과대학 학장
- 임복빈 십사(26구역) 숭상대 음악대 학상
- 박형기 집사(4구역) SIKA, Korea 대표
- 고광중 성도(14구역) 하나은행 역삼지점장

▶ 출국
- 박미화 집사(4구역) 중국 북경
- 이영재 집사(15구역) 미국 안식학기 연구차

▶ 수상
- 박현길 집사(14구역) 장영실상 수상
  (고충격, 초고광택 폴리스틸렌 개발 세계 최고로 평가됨)

▶ 유학
- 최정아(최동욱 · 김자성 집사 장녀)
  미국 코넬대학에서 전산석사과정 전공차
- 김원택(강신후장로 · 강윤희 집사 장남)
  미국 일리노이 대학

새책 안내

당신은 몇 살까지 살 작정입니까

김경빈 집사(한의학 박사 · 서초동 인당한의원장)가 장수 · 건강의 지침서 「당신은 몇 살까지 살 작정입니까」를 발간했다.

건강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되는 정신적인 면에서부터 두통, 어깨결림, 알러지, 천식 등 생명에는 별 지장이 없으면서 일반적으로 치유가 어려운 질병 퇴치에 이르기까지 자가요법으로 손쉽게 개선할 수 있는 간단한 한방요법이 수록되어 있다. 그밖에 꼭 알아야 할 건강 식생활 지혜 7가지, 한의학의 정의, 정력은 인생의 활력소 등을 알기 쉽고 재미있게 설명하고 있다.

(서울문화사 발행)

교회소식

여름수련회

98년 교구별 수련회가 1차(8/3~5), 2차(8/5~7)로 나뉘어 은혜 가운데 끝마쳤다. 이번 수련회는 결단예배, 공동체훈련, 별이 빛나는 밤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으며, 특히 임영수 목사님과의 자유토론은 참석한 교우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폭우 가운데서도 은혜의 시간, 아름다운 교제의 시간을 나눌 수 있었다.

한편 교회학교도 각 부시별로 7, 8월 중에 여름수련회를 가졌다.

수재의연금 전달

우리 교회에서는 이번 호우로 인해 피해를 당한 사람들을 위한 수재의연금 및 구호품을 다음과 같이 전달하였다.

- 충북 보은 회북면 회인 중앙교회 - 구호품 10박스와 50만원
- 충북 보은 수한면 거현교회 - 구호품 10박스와 50만원
- 부산/경남 지역 - 구호품 22박스
- 평양노회에 500만원 전달

정신여고 대강당 건축 90% 진척

정신여고 대강당이 현재 90% 이상 공정이 진척되어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완공은 10월말 예정이며, 11월 첫째주 첫 예배부터 대강당에서 드려질 예정이다. 완공때까지 교우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가 있길 바란다.

다음은 한 교우의 기도문이다.

하나님께서 111년 전에 세우신 정신여고 안에 부자의 헌금이 아닌 평범한 많은 성도들의 기도와 기대, 작지만 큰 정성으로 아름다운 강당을 세워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학교가 한국 뿐만 아니라 21세기 세계선교를 준비하는 많은 젊은이를 키워낼 수 있는 역량있는 주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소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함즐함울에서 기자를 모집합니다.

자격은 고등부 이상 교우님들이며,
관심있는 분은
김화수 목사님께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T. 511-1497)

생활법률상식

전세에 관한 법률상식(3)

김완중 집사
(변호사)

질문: A는 97년 1월 1일 B의 집에 세들어 살기 위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확정일자를 받으려고 하는데 확정일자란 무엇이며 그 취급기관, 방법, 효력은 무엇인지?

답변: 확정일자란 그 날짜 현재 그 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 여백에 번호를 기입하고 확정일자인을 찍어주는 것을 말한다. 확정일자는 법원, 등기소, 공증인 사무소, 법무법인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읍 · 면 · 동사무소에서 취급하며 집주인인 B의 동의 없이 세입자인 A 혼자서 위 취급기관에 계약서를 제시하고 구두로 청구하면 된다. (전입신고시 하는 것이 좋다)

세입자인 A가 B의 주택에 입주하고 전입신고도 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아두면 후일 B의 집이 경매 처분되는 경우에 확정일자일 이후의 후순위 권리자들보다 우선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받아갈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

시

돌멩이

이드보라 선교사

산에서 갓 캐어 온
울퉁불퉁한 돌덩이
때가 묻어 있어
누가 귀히 여길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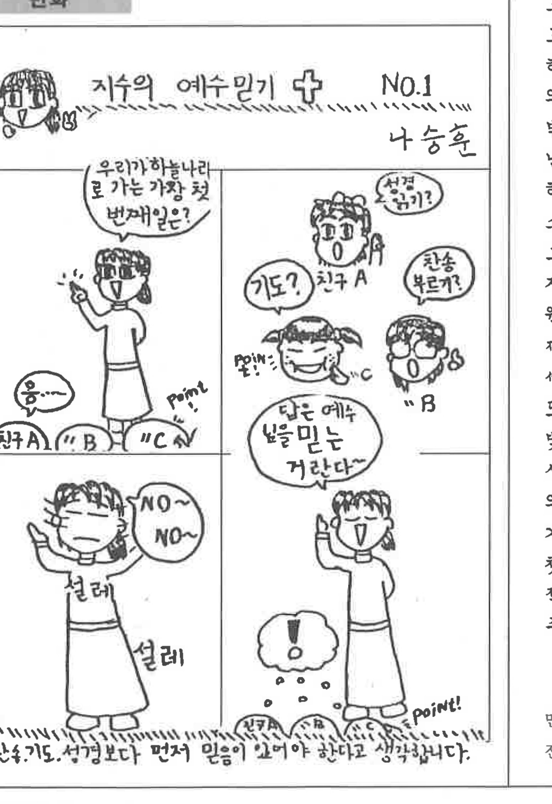
그러나 추한 모습이래도
어여삐 품으시는
따뜻한 가슴이 있으니

순결한 생수로 적시어
세속의 땟물을 씻어 내고
사랑의 훈기를 불으시어
차가운 마음을 데우시니

있는 그대로 받으시고
못난 그대로 감싸시어
당신의 정하신 뜻을 따라
하늘 나라 정원에 두시려
빛난 보화로 가꾸십니다

*이드보라 선교사는 미국, 브라질, 스웨덴, 일본 등지에서 마약 중독자 · 윤락녀 등 사회 밑바닥에서 고통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 사역하다가 현재 서울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다.

만화



기도로 시작한 제헌국회

1948년 5월 31일 초대 국회는 첫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 민족에게 해방의 기쁨과 정부 수립의 감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그로부터 50년, 시련과 아픔은 까마득히 잊고 교만한 삶을 살아 온 우리는 경제위기라는 모진 시련을 맞게 됐다. 이제 우리의 잘못을 반성하고, 第二의 建國이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림으로써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하겠다.

기도로 시작한 제헌국회

임시의장(이승만)

대한민국 獨立民主國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宗敎, 思想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을 당해 가지고 사람의 힘으로만 된 것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感謝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먼저 우리가 다 성심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에게 祈禱를 올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윤영 의원 기도(일동 起立)

이 우주와 만물을 創造하시고 인간의 歷史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民族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랜 시일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사 正義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사 하나님은 이제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 하심은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만방에 묘示하신 것으로 저희들은 믿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이로부터 南北이 둘로 갈리어진 이 민족의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기도하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원치 아니한 민생의 도탄은 길면 길수록 이 땅에 惡魔의 權勢가 확대되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은 이 땅에 오지 않을 수밖에 없을 줄 저희들은 생각하나이다. 원컨대 우리 조선독립과 함께 남북통일을 주시옵고 또한 우리 민생의 복낙과 아울러 세계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 저희들은 성스럽게 택함을 입어가지고 글자 그대로 民族의 代表가 되었습니다. 그러하오나 우리들의 책임이 중차대한 것을 저희들은 느끼고 우리 자신이 진실로 무력한 것을 생각할 때 智와 仁과 勇과 모든 德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요소를 저희들이 간구하나이다. 이제 이로부터 국회가 성립이 되어서 우리 민족의 염원이 되는, 모든 세계만방이 주시하고 기다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며 또한 이로부터서 우리의 완전 자주독립이 이 땅에 오며 자손만대에 빛나고 푸르른 역사를 저희들이 정하는 이 사업을 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회의를 사회하시는 의장으로부터 모든 우리 의원 일동에게 건강을 주시옵고 또한 여기서 양심의 정의와 위신을 가지고 이 업무를 완수하게 도와 주시옵기를 기도하나이다. 역사의 첫 걸음을 걷는 오늘의 우리의 환희와 우리의 감격에 넘치는 이 민족적 기쁨을 다 하나님에게 영광과 감사를 올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 이 기도문은 1948. 5. 31 제헌국회 제1차 본회의록에 속기된 것으로서 이승만 박사가 단상 의장석에 등단하여 전국회의원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제의한 전문과 이윤영 목사가 기도한 기도문임.